

## 엘앤케이바이오, 인도 현지법인 설립 완료 '인도시장 진출 가동'

▶ [중국에 이어 인도 법인 설립을 통한 시장 진출준비 완료](#)

▶ [인도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인도 척추 임플란트 시장 공략 시동](#)

**[2018-04-18] 척추 임플란트 전문기업인 엘앤케이바이오가 인도에 현지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인도시장 진출을 본격화 한다고 18일 밝혔다.**

엘앤케이바이오 (대표이사 강국진, 이승주)는 인도 구르가온에 현지법인 설립하고 판매에 필요한 등록절차를 완료, 판매업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인도 시장의 경우 2016년부터 인도 전문의들과 다수의 미팅을 통해 현지화 전략을 구상해왔으며, 이번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2개월 이내에 첫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5년 44억 달러에서 2016년 70억 달러로 증가, 타 산업이 4~5%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료기기 산업은 매년 15%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도는 의료기기의 75%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매력도가 높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더불어, 인도의 급격한 의료분야 발달과 함께 의료기기 시장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제품 공급에 대해 여러 병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뉴델리에 위치한 Indian Spine Injuries Centre 병원의 경우, 연간 척추 수술 건수가 3,000건에 육박하는 등 명성 높은 병원들과 제품 공급 계획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병원의 주요 전문의인 Dr.Chhabra는 인도 척추학회장으로 2016년부터 회사와 업무 협력을 통해 현지화 전략을 세워왔으며, 해당 병원에 대한 납품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이외에도 이미 납품권을 확보한 병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품 공급계획을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엘앤케이바이오 관계자는 "지난 11일 홍콩 의료기기 전문업체를 통한 중국 진출과 더불어 의료기기 시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도 시장에 법인설립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는 등 글로벌 의료기기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